IBKS Spot Comment

IT/디스플레이

강민구

02) 6915-5473
kmg@ibks.com

[디스플레이]
SDC-BOE ITC 분쟁 Comment

ITC 분쟁은 양사 간 합의로 종결될 것

삼성디스플레이와 BOE간의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합의를 통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美 ITC(국제무역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양사 간의 합의로 인해 절차가 중지(Stay)되었다.

지난 예비 결정에서 BOE의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 바 있어 삼성디스플레이가 거액의 로열티를 수취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의 로열티 수익금은 약 1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합의에 대한 아쉬움은 주가에 반영

지난 7월, ITC 예비결정에는 BOE 및 BOE가 생산하는 OLED 패널에 대한 〈제한적수입금지명령〉, 〈영업중지명령〉, 〈수입보증금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포함되었다. 11월 최종결정에서 예비결정 수준의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BOE의 미국 영업망 및 진출이 제한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졌고, 국내 디스플레이 업종은 반사 수혜 기대감에 따라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다.

반면,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의 분쟁 합의 보도 이후 디스플레이 업종 주가는 혼조세를 기록했다. 최종판결을 통한 중화권 패널사에 대한 장기적인 제약을 기대했지만, 로열티 수취로 마무리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덕산네오룩스(-5.7%), AP시스템(-2.3%), 아나패스(-1.1%), LG디스플레이(+2.0%), 선익시스템(+0.4%), LX세미콘(+1.5%) 등 관련 기업들은 밸류체인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LTPO OLED 진입장벽을 재확인

이번 분쟁은 OLED 시장에서 국내 패널사가 장기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BOE 및 중화권 패널사의 영업이익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1조원에 달하는 로열티는 장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패널사들은 8.6G 및 Foldable 등 신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신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영업비밀 및 특허에 대한 재산권을 지켜낸 선례를 남겼다.

OLED 시장에서의 기술 격차 역시 재확인되었다. 같은 날 언론을 통해 BOE의 iPhone 17향 LTPO OLED 공급 무산 소식 역시 보도되었다. BOE는 수율 문제로 인해 Pro 및 Pro Max 모델을 중심으로 적용되었던, LTPO OLED 납품에서 고배를 마셔왔다. iPhone 17 Series부터는 Pro 모델을 대상으로 LTPO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수율 문제가 재기되며 무산되었다. 당초 BOE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약 1천만대 수준의 패널은 전량 국내 패널사에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